

전국에 흩어진 5·18기록물 국가 차원 일원화해야

호남권 기록유산 보존시설 시급…‘역사기념관’ 광주 건립 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시너지

전국의 국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해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을 현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집대성하고, 향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항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5·18기록을 한데 모을 수 있는 ‘5·18역사기념관’을 광주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역사기념관’은 경기도 성남 등 국가기록관에 산재한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시설과 현행 민간 자료를 보관중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5·18기록물이 5·18민주화운동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의 자료, 그리고 창작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5·18역사기념관’ 건립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기록관 7층에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홍보 활용 방식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을 맞아 준비됐다.

5·18기록관 흥인화 연구실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재청 전문위원이자 전남대 명예교수인 나경수 교수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역할기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김재순 나라기록관 관장과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활용체계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김재순 관장은 국가차원의 호남권 기록유산보존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남권에는 부산에 1984년에 설치된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이 있으며, 수도권에는 2008년에 성남의 구 일해재단 부지에 중앙아카이브스 건물로 개관한 나라기록관이 위치해 있다. 또 충청권에는 정부대전청사 인근에 2013년에 설치된 국가기록원 행정기록관이 있지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나라기록관에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권에는 국가차원의 후대 기록유산을 종합적으로 수집·보존하고, 학술연구자료 등을 서비스하는 기록관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김재순 관장은 “만약 호남권에 국가차원의 기록유산 보존시설의 신축과 연계, 5·18민주화운동기

록관에서도 가장 ‘5·18역사기념관’ 등의 이름으로 세계사적 위상에 부합하는 상징건축물로 신축해 동일한 단지에 함께 입주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호남권의 기록문화 보존시설이 구축되면 현재의 5·18기록관 공간 협소, 부족한 인적 및 재정적 지원 문제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김재순 관장은 “5·18 기록물들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지만, 등재된 기록유산들 중 민간영역 기록물은 광주에, 정부영역의 기록물은 성남시의 나라기록관 등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방대 한 정부영역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호남권에 국가차원 기록유산 보존시설 설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용화 5·18기록관 관장은 “국대를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5·18 기록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면서 “이번 포럼으로 오월정신인 5·18기록물을 넘어 후세에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치동물원 겹경사 났네

‘멸종위기 1급’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쌍둥이 태어나

마다가스카르의 마스코트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 한 쌍이 광주 시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사진>

25일 광주시는 지난 3월말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아롱이’와 ‘다롱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아롱이·다롱이 처럼 알락꼬리여우원숭이 한 쌍의 탄생은 우치동물원에서는 처음 맞는 일로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태어난지 두 달이 지나 일반에 공개했다.

이로써 우치동물원에는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이는 총 9마리가 살고 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는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현재 1급 멸종위기동물로 분류돼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임진택 우치동물원 소장은 “이번 여우원숭이 탄생을 계기로 우치동물원은 자연에서 멸종해가는 멸종위기종을 적극 도입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타 동물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딸기 직접 따어요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강동 자산딸기 수확장에서 건국동 7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딸기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지역혁신 플랫폼 참여대학, 공동교육과정 개설키로

전남대학교가 총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의 참여 대학들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전남대를 비롯한 지역혁신플랫폼 15개 참여대학은 최근 ‘IU-GJ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동체결하고, 학점교류의 활성화와 대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IU-GJ는 광주전남혁신대학을 뜻하는 각 단어 첫 글자를 딴 약칭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학은 광주·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 모두 6개의 융합전공을 개설하고, 교육콘텐츠를 공동 개발해 2022년 3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면서 각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합학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과 협업을 고교학점제 지원, 스마트캠퍼스 구축, 진로설계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형 오픈캠퍼스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성준 대학교육혁신본부장(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은 “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위기를 타개 하면서,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도 육성하는 지원체계가 첫 발을 뒀다”며 “지역특화형 공유대학의 모범 사례이자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한전공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장석웅 전남교육감, 윤의준 총장과 간담회…상생방안 논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지난 24일 도 교육청을 방문한 윤의준 총장과 만나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대와 전남도교육청 간의 상생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교육감은 지역 사회의 관심도와 투자에 비해 지역 학생 유치에 대한 한국에너지공대의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아 전남교육과 한국에너지공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체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 육성이란 한국에너지공대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좋은 진학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지역 우수 인재 모집을 위해 대학에서도 다방면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도 교육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장 교육감과 윤 총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편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상호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